

Style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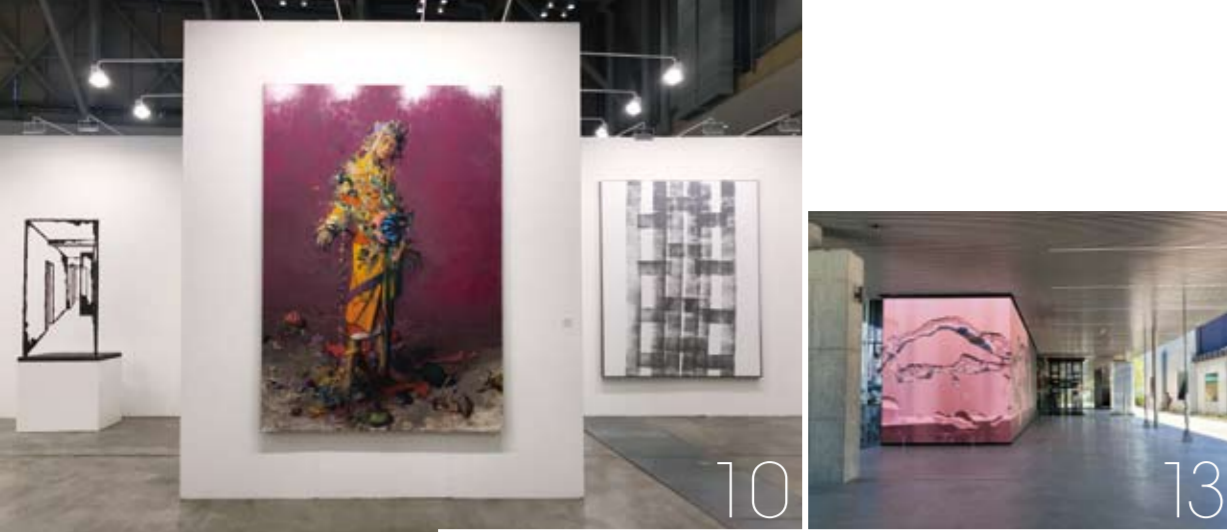
WILLOW SMITH.
MEMBER OF THE PASHA
COMMUNITY ON CARTIER.CO.KR

JUNE 2021
vol.222



PASHA DE *Cartier*





10

13



가르피에 최초의 방송 시계이자 스포티즘을 부각한 유니섹스 디자인이 특징인 파샤 워치, 클래식 워치 메이킹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강렬한 코드를 바탕으로 독특한 심부름을 그려내며, 1985년 출시된 이래 그려낸 작고 대담한 시그니처를 디자인에 반영했다. 표지 속 시계는 원형 디자인 속 정사각형 레일 트랙과 4개의 이브리아웃자, 그리고 재인으로 연결한 스크루 다운 크라운의 매치가 개성 넘친다. 케이스 지름은 35mm,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식했고 핑크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문의 1566-7277



18



08

- 09 **SERENGETI DREAMS** 미지에 대한 놀라움과 우연한 결음이 가득 찬 여행길에서 만난 아름답고 감동적인 반짝임.
- 10 **ART AFFAIRS IN BUSAN** 몇 년 전부터 한해가 다르게 지평을 넓혀가는 듯한 문화 예술 생태계의 풍경 덕분에 도시의 매력이 한층 다채로워지고 있는 부산! 해운대 일대를 후끈 달아오르게 한 '아트부산 2021'을 계기로 로컬 콘텐츠의 힘에 대해 생각해본다.
- 13 **DESIGN TO LIVE BY** 날이 갈수록 브랜드 가치를 키워가는 현대 자동차. 지난 4월 말, 부산 망미동의 명소로 자리 잡은 F1963에 오롯이 디자인에 초점을 둔 브랜드 체험관을 열고 전시와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적소통'을 꾀하고 나섰다.
- 14 **COME TOGETHER** 같은 듯 다른 느낌. 매일 착용할 수 있는 데일리 카를링 다트쌍.
- 15 **STRONG EFFECT** 블랙 세라믹으로 빛어낸 강렬한 정체성.
- 16 **ELEGANT INNOVATIONS** 올해 사뭇 위치는 디지털 플랫폼 형식으로 진행된 워치스 & 윈더스 제네바 2021에 안착했다. 1980년대 일렉트로 뮤직에서 영감을 얻어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컬러를 입힌 캡슐 컬렉션, 기능과 디자인의 변주를 통해 보다 신선한 모습으로 재탄생한 아이코닉 컬렉션까지.
- 18 **SEA ALONE** 6월의 푸른 바다와 함께한 럭셔리 프리 서머 룩.
- 26 **LET'S PLAY IT** 운동 욕구를 되살려주는 '뭉한' 패션 기어.
- 27 **WELCOMETO WONDERLAND** 올해로 창립 1백26주년을 맞은 스위로브스키가 '인스턴트 윈더(Instant Wonder)'를 공개했다. 아름답고 경이로운 크리스탈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 28 **ROSY DAYS** 한없이 들뜨고 사랑에 빠지고 싶은 계절, 정맞은 여름을 빛내줄 메이크업 팔레트.
- 29 **BEAUTIFUL TECH** 갈바닉과 IPL(Intensive Pulsed Laser)을 결합한 글로벌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실론의 인티니티.
- 30 **지금, 서울의 내추럴 와인 2021** 뜨겁고 화려하게 한국 시장에 상륙한 내추럴 와인. 전문가들은 내추럴 와인 시장이 더욱더 견고하게 한국 주류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
- 32 **ESCAPE TO HEAVEN** 훌쩍 떠나고픈 경이로운 섬, 제주도. 그리고 스타일러시한 호텔 '트로피컬 하이드어웨이'.
- 33 **KEEP WELLNESS** 운동 의지가 불타오르는 6월, 효과를 배가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도와줄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
- 34 **EDITOR'S PICK** 햇볕으로 달아올라 진정이 필요한 여름 피부를 달래줄 뷰티템 13.

TIME, A HERMÈS OBJECT.



HERMÈS H08
THE TEXTURE OF TIME

Style 조선일보

Issue.222 June 2021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찾아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각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GORGEOUS PIECE

매종의 노후유를 고급스러운 볼륨감과 신비로운 디자인으로 구현한 발롱 블랑 드 까르띠에, 올해는 스틸 케이스를 적용해 합리적인 면을 더했다. 베젤에는 총 0.66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44개를 세팅해 화려한 면모를 살리고, 새틴 효과를 준 송아지가죽 스트랩에 네이비 블루 컬러를 입혀 우아하게 완성했다. 9백80만원대, 문의 1566-7277



ONE PICK

스타일 좋아하는 남자들의 원픽, 태엽리 주얼리. (우부터) 기존 디자인과 다르게 잠금장치가 없는 오픈 형태의 18K 옐로 골드 리브 브레이슬릿 1천만원 **까르띠에**, 문의 1566-7277. 심플한 T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18K 옐로 골드 태피니 T1 와이드 링 가격 미정 **태피니**, 문의 02-6250-8620. 로즈 골드에 블랙 세라믹을 기이한 비저로인락 테크닉으로 4백만원대 **볼가리**, 문의 02-2056-0170. 포토그래퍼 **최만영** 에디터 **장리윤**

TRUST ME

인공지능 기술로 사물을 인식하고 깔끔한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 비스모크 제트 붓시, 미세 먼지까지 꼼꼼하게 흡입하는 청소기의 기본 역할은 물론, 반려동물의 배설물이나 전선, 유리컵 등 장애물까지 구분하는 능력을 갖췄다.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스마트싱크' 앱을 통해 TV 주변 청소에 취약한 같이 구체적인 명령어도 인식하는 진짜 AI 청소기다. 1백59만원, 문의 1588-3366



건축과 주얼리 사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빛과 구조라는 주얼리 세공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쇼메가 이번에 선보이는 하이 주얼리는 건축과 주얼리를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을 제시한다. 6개의 서브 컬렉션, 총 81파스의 작품을 통해 주얼리 예술의 세계를 펼칠 예정. 그중 39파스를 6월 8일부터 공개한다. 문의 02-3442-3359

BE LOVED

구찌의 재치와 강성이 돋보이는 GG 마몽 레드 마들라세 레더 스몰 솔더백, 보석의 환상적인 빛에서 영감을 얻은 색조 새롭게 태어난 구찌의 시그니처 비버랜드 핸드백 라인이다. 짙은 레드 색조의 마들라세 가죽 보드에 섬세한 파스텔 핑크 트라잉으로 잔미한 루비 컬러를 표현했다. 3백10만원, 문의 02-3452-1921



깨끗하게 자신 있게

집에서도 간편한 제모를 돕는 홈케어 기기 3.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실론 인피니티** FDA, CE, 한국 식약처 등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받은 제모 의료 기기, 감촉이 예민하지 않은 IPL 레이저 제모 의료 기기, 블루 라이트를 이용해 삼공 작용을 하는 클렌징 박스를 함께 제공해 위생적인 보관이 가능하다. 49만원, 문의 080-246-1234 **이오사키 SIPL-2000 플러스** IPL 광선을 이용한 제모뿐 아니라, 스킨케어 전용 쿼트지도 변경해 피부 질환 치료 기능도 갖췄다. 스몰 카트리지를 옵션으로 제공해 손가락이나 인종 등 좁고 정교한 부위에도 사용 가능하다. 35만원, 문의 1899-2096 **필립스 사티비 에센셜** 2단계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헤어의 굵기 에 따라 맞춤 제모가 가능하며, 빌트인 라이팅이 알맞은 제모를 돕는다. 예민한 부위를 관리하기 위해 샌더티브 캡과 롤러가 부착된 마시지 캡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7만9천원, 문의 080-600-6600 포토그래퍼 **최만영** 에디터 **이주이** 어시스턴트 **배시현**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INSIGHT

너 하나면 돼

파운데이션과 컨투어링 세이드로 구성된 듀오 페이스 팔레트, 크림 투 파우더 타입으로 촉촉한 크림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부드럽게 발려 파우더처럼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텍스처가 일품이다. 덧발라도 뭉치지 않고 균일하게 발려 얼굴에 자연스럽게 인체감을 부여한다. 메이트드 보이레 르 백트 크렘 듀오 8gx2 15만원, 문의 02-310-5025



CAT EYES

일렉산더 맥퀸이 선보이는 새로운 아이웨어 패밀리를 살펴볼 차례다. 실컷 울리간 눈썹기가 매력적인 캣아이 형태를 이룬다. 정교한 테일링을 강점으로 하는 하우스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인체 공학적 설계로 남녀 불문하고 시크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37만5천원, 문의 02-6105-2226



SHADY LADY

점점 더 뜨거워지는 햇살과 함께할 마스트 해브 아이젠. (왼쪽 우부터) 코튼 소재의 베이직 디올 메시 베일 베레모 가격 미정, 문의 02-3480-0104. 실링카리는 원피스에 매치하면 좋을 캐주얼 스트로 햇 91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가벼운 라포세트 스트로 햇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546-0615. 포토그래퍼 **최만영** 에디터 **장리윤** 어시스턴트 **배시현**

NEW SPACE



© Sam Gilliam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Courtesy of Pace Gallery. Photography by Sangjae Kim

내로라하는 미술계 '브랜드'들이 한국에 관련된 행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화랑인 페이스갤러리가 새 공간을 꾸려 눈길을 끈다. 지난 2017년 작은 규모로 서울 지점을 냈던 페이스갤러리는 최근 서울 한남동 르베이지 빌딩의 두 층을 아우르는 전시·판매 공간을 새롭게 선보였다. 약 800㎡ 평에 이르는 복층 공간은 조민석 대표가 이끄는 마스터스에서 레노베이션 작업을 맡았다. 페이스갤러리 회장 마크 길릴리는 "여러 주요 미술관과 아트 페어가 서울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페이스갤러리가 이러한 전현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층의 새 공간에서 여는 첫 전시로는 아시아 최초로 소개하는 미국 화가 샘 길릴엄(Sam Gilliam) 개인전을 택했다. 1960년대 중반 미국 워싱턴 D. C. 미술계에 등장해 동양화 추상표현주의 영역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확장해 온 샘 길릴엄은 빗자 칸버스(beveled edge) 회화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9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재즈 색소폰 대가 존 콜트레인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재즈의 즉흥성에 바탕을 두고 추상에 접근하는 그는 사회운동가이기도 하다. 전시는 7월 10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67, 이후에는 홍콩에서 순회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다들 아셨을 A2U 선글라스
7천원 다들.

레몬과 오렌지,
사야우드와 톱카 빈이
아우러진 순수하고
맑은 시트러스 향
이티산퓨어
퍼퓸, 125ml,
11만3천원
존바버토스.

실트 스카프는
8만원에 팔려나.

JOHN VARVATOS
ARTISAN PURE

베이지 색의
팬츠 가격
미정 브루넬로
쿠차넬리.

레더 트라밍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볼체만치바나.

화이트 커세트 백, 23X15cm,
가격 미정 보타가 베네타.

우븐 슬라이드 1백만원다 맨디.

사일링스 조끼
에티 아미이

멀티 컬러 우븐 클러치, 31X21cm, 1백27만원
에르메네즈 제니.

브라운 코르크를 소재로 한
아미이 가죽 가방.

for him Selection

가벼운 코튼과 라피아 소재가 선사하는 감각의 즐거움.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kim sa 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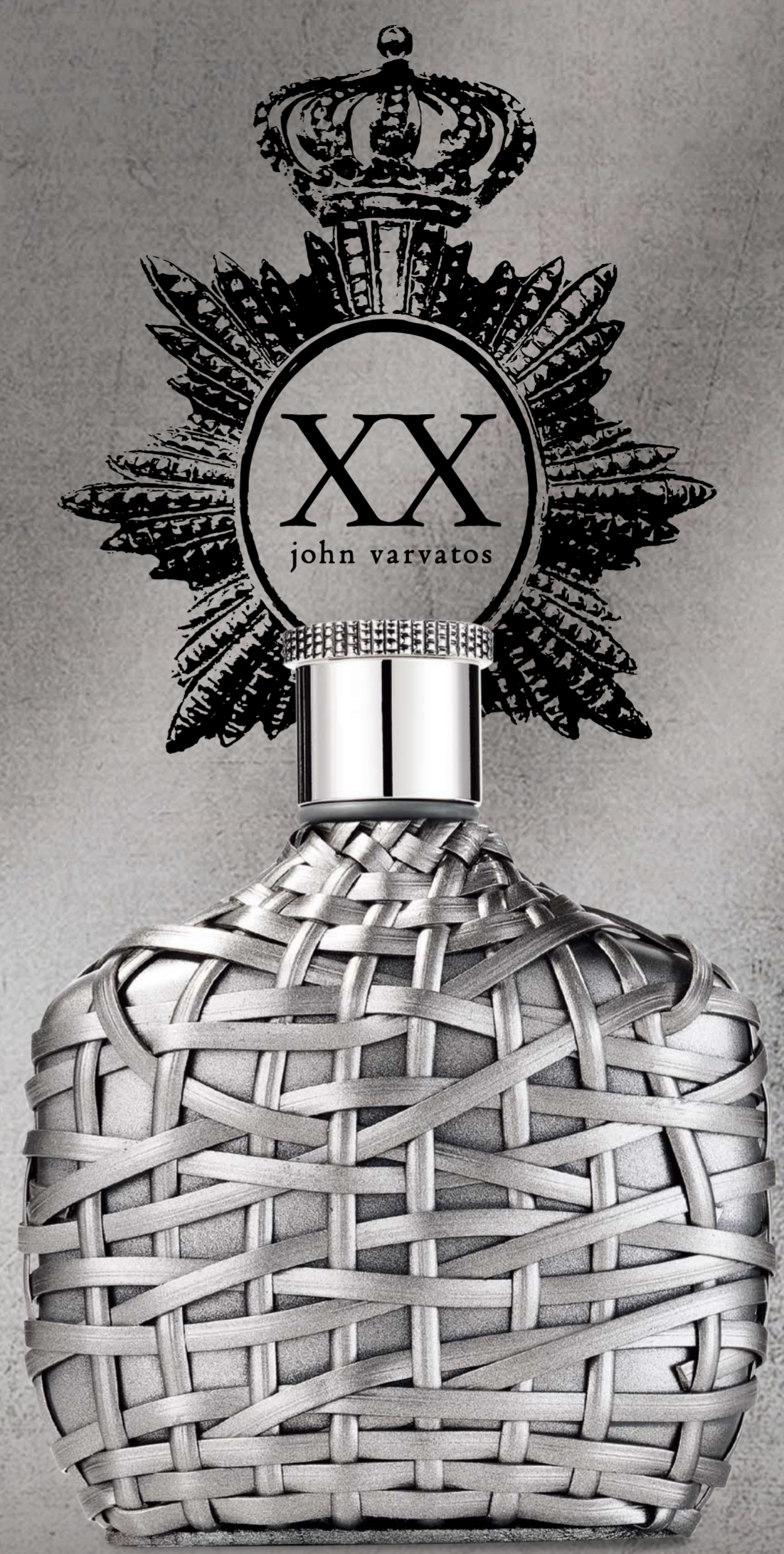
카프 스킨 블루 스웨이드 로퍼
가격 미정 실버토레 페라기모.

카키 네이비
스쿠버 워터
1백38만원
해일턴.

VLT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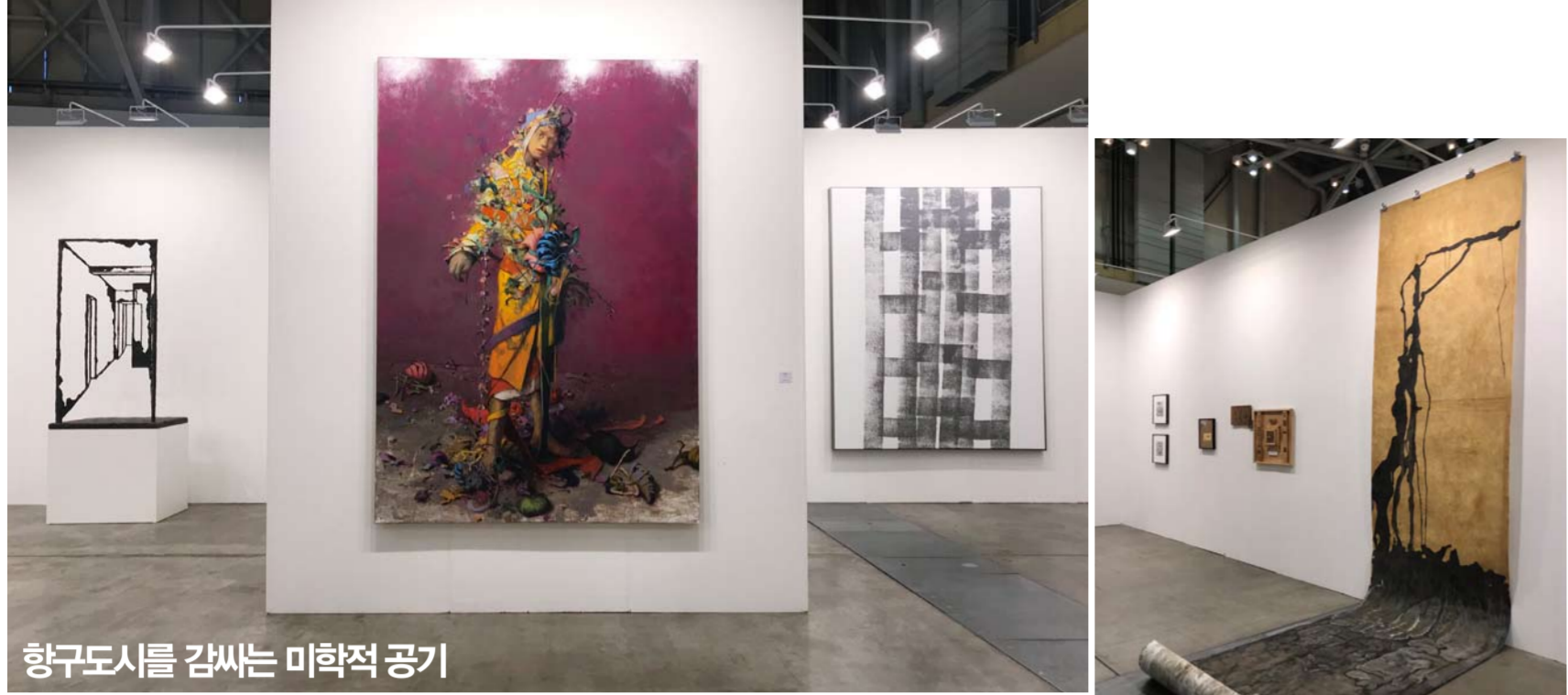
밴디 02-514-0652
다울 02-3480-0104
존바버토스 080-363-5454
에르메스 02-544-7722
볼체만치바나 02-3442-6888
보타가 베네타 02-3438-7601
해일턴 02-3467-8710
프리디 02-3218-5331
로로피아나 02-546-0615
에르메네즈 제니 02-518-0285
브루넬로 쿠차넬리 02-3479-1804
실버토레 페라기모 02-3430-7854
발렌티노 가리버니 02-2015-4653

나일론 소재 백팩, 32X45cm, 1백33만원 발렌티노 가리버니.



john varvatos
XX ARTISAN
the fragrance for men

©2021 EA Fragrances Co. John Varvatos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John Varvatos Apparel Corp.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길 11, 11층 | www.jv.com | 문의: 02-3480-5454



항구도시를 감싸는 미학적 공기

Art affairs in Busan



팬데믹으로 온통 멎었고 생채기가 난 영혼이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은 바다의 품을 그리워한다. 여름이 가까워지면 더욱 그렇다. 제주나 남해처럼 청정한 한가로운 미학을 품은 곳도 좋지만, 왠지 지겹힐 활력이 넘치는 항구도시도 좀처럼 물리치기 힘든 끼를 발산하며 유혹의 손짓을 한다. 몇 년 전부터 한 해가 다르게 지평을 넓혀가는 듯한 문화 예술 생태계의 풍경 덕분에 도시의 매력이 한층 다채로워지고 있는 부산! 특히 심상치 않은 미학적 공기가 감돌고 있는 초여름의 부산은, 때로는 떠들썩한 열기가 꽤 괜찮은 치유책이 될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한다. 해운대 일대를 후끈 달아오르게 한 '아트부산 2021'을 계기로 부산이라는 도시만이 지닌, 그리고 잠재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로컬 콘텐츠의 힘에 대해 생각해본다.

#아트부산 2021 & ...

부산은 길을 떠날 핑계를 애써 찾아 방목하고 싶은, 그리고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도시다.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과 특유의 쾌활한 이미지로 오랫동안 인기를 누려왔고, 국제 영화제 개최지로서 위상도 지닌 메트로폴리스지만, 그계 끌림의 주된 이유는 아니다. 사실 자연만 따지면 다른 경쟁한 후보들이 있고, 문화 예술 콘텐츠의 세련미나 다양성에서는 서울이란 도시가 워낙 독보적이니까. 아무래도 외지에서 찾는 도시 선택자 입장에서는 바쁜 와중에도 느긋하게 거닐고 싶은 거리와 골목이 얼마나 많은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 누군가 '도시의 영혼'이라고도 부르는 거리 풍경,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녹아 있는 로컬 콘텐츠의 매력 말이다. 어느새 부산에서는 늘 들리는 맛집이며 카페의 동선을 그릴 수 있고,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변주를 꾀하는 공간도 여럿 눈에 들어오게 됐다. 여기에 미술제나 음악제 같은 '축제가 더해지면 거리의 표정은 더욱 생기를 띤다. 현대미술 장터인 아트 페어가 있더라도 열려 그 열기가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5월의 부산도 그랬다.

도통 자힐 줄 모르는 현대미술 장터를 둘러싼 열기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아트부산(Art Busan), 지난 5월 13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주말까지 이어지는 나흘간의 아트 페어가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펼쳐졌다. 프리뷰 데이부터 북새통을 이루며 '환관 소식'도 여기저기에서 들리더니 국내의 갤러리 1백10곳이 참가한 '아트부산 2021'의 공식 방문객은 8만 명을 넘겼고 작품 판매액도 3백50억원대로 역대급 기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한 달 전에 부산화랑아트페어(BAMA)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 아트 페어를 향한 열기가 지지기는커녕 더 솟구친 모양새다. 아시아 지역 아트 페어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아트 바젤 홍콩의 2019년 관람객이 8만8천 명 수준이었는데, 이 수치만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해도 아트부산의 성장세는 단연 주목할 만하다. 물론 비단 부산만의 특색은 아니다. 지난해 팬데믹의 충격으로 화연히 움츠러들었던 것과 달리 요즘 국내 미술 시장의 분위기는 꽤 좋은 편이다. MZ세대의 가세 등으로 문화 예술 향유층의 저변이 넓어진 영향도 있지만 투자처를 찾아 헤메는 사중 유행성이 '보복 소비'의 혈관까지 등에 업고 미술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 페어든 글로벌 페어든, 우리의 축제가 되어야

시장에 불어오는 순풍에 취해 아트부산을 가리켜 '한국의 마이애미'라니, 아트 바젤 홍콩과도 지용을 겨루게 됐다니 하는 식의 들뜬 자화자찬은 선부른 감이 있는 듯하다. 바젤이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내세운 아트 바젤 홍콩의 판매액이 1회 행사당 비공식적으로 1조원

대에 이른다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물론 명실공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트 허브'로서 지위를 누려온 홍콩이 여러모로 위기에 봉착한 것은 맞지만, 그 틈을 타 패권을 노리는 도시들이 아시아 곳곳에 꽤 포진해 있다(여기에는 내년에 글로벌 아트 페어 프리즈를 유치하는 서울도 포함된다). 특히 아트 페어에는 '수명'이 있다는 논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역 아티스트와 인프라, 시장 규모가 두루 받쳐주지 않은 채 그저 '글로벌'만 지향하며 달리다가는 수명이 급격히 단축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구미 지역의 명성 있는 갤러리들이 참가하면서 '지역 페어'에서 글로벌 요소를 어느 정도 가미한 균형 있는 구성을 갖추게 된 아트부산은 꾸준한 변신의 노력 속에서 10회 차에 이른 현재에는 또 다른 도약을 타진할 수 있게 됐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타테우스로파, 리만머핀, 에스더 쉬퍼 같은 글로벌 갤러리에서 들고 나온 이른바 '블록버스터' 작품만이 아니라 가정의 소품이나 관화라든지 경쟁력 있는 중견, 신진 작가 등 다채롭고 조화로운 구성이 MZ세대를 아우르는 확대된 컬렉터층의 구미를 자극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관객이 움직이면 벽에 여러 색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작품의 일부가 되는 올라푸르 엘리아손의 미디어 작품이라든지 커다란 물고기 모양의 알루미늄 풍선과 노닐 수 있는 필립 파레노의 작품, 한국화 기법으로 현대적인 콘셉트의 작업을 하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 같은, 올해 호평을 받은 다수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그저 '그들만의 장터'가 아닌 '우리의 축제'로 커나갈 수 있는 동력이 아닐까 싶다. 아트 바젤 홍콩처럼 한 점에 수백억원씩 판매되는 작품이 나오지 않더라도, 보다 많은 이들이 즐기고 거래할 수 있고 값비싼 부스값 탓에 많은 갤러리들이 울상 짓지 않는 보다 대중적인 플랫폼으로 완전히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게 부산을 애정하는 도시 선택자로서의 바람이기도 하다.

#'동시대'를 고민하는 미술관의 역할 지역을 돌아보고 보듬고 펼쳐내기, 부산시립미술관(BMA)

2000년대 중반, 축구 영웅 박지성이 활약했던 영국 맨체스터에 경기를 보러 갔다가 지역 화가의 존재를 접한 기억이 있다. 맨체스터 출신 화가 L. S. 라우리(L. S. Lowry, 1887~1976)라는 인물이다. 지역 토박이 화가라 한국에서는 낯선 이름이었는데(심지어 당시 런던에서도 별로 알아주지 않았지만 나중에 '미스 라우리 & 선'이라는 영화가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라우리의 지류를 훑어볼 수 있는 미술관을 품고 있는 복합 문화 공간 '더 라우리'는 맨체스터의 명소였다. 이렇듯 어떤 지역이나 도시든 글로벌 슈퍼스타가 아니라도 현지인들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작가군이 있다. 그동안 '아카이브'에 몰두할 만한 여유가 없어 간과했다가, 어떤 계기로 연구 작업이 이뤄지면 훗날 미술사적으로도 가치 있는 발견이나 재조명이 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수년 전부터 부산의 근현대미술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획전을 펼쳐오고 있는 부산시립미술관의 행보가 반갑고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산시립미술관은 2018년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모던·혼성: 1928~1938'과 '피란수도 부산-절망 속에 날'을 열었고, 2020년에는 1960~70년대 부산 미술을 돌아보는 전시를 열었다. 그리고 올해는 1980년대 의미 있는 역사적 발자취를 남긴 시대정신을 '형상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바라보는 '거대한 일상: 지층의 역전'을 진행 중이다. 흔히 '민중미술'의 시기로 인식되는 1980년대 한국 미술을, 부산의 형상미술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면 좀 더 입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는 의도에서 출발한 기획전이다. 김난영, 김은주, 노원희, 안창홍, 송주섭 등 26명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유명명을 떠나 전반적으로 작품 세계가 흥미롭다(김경미 학예연구사가 35번이나





출장을 다니면서 새롭게 발견한 작품들도 포함돼 있다. 그중 8명이 강력한 감성을 주는 여성 작가라는 점도 인상적이다. 고인이 된 송주섭의 테라코타 작품과 한 공간에 콩테 작품을 내 건 김은주 작가는 “우리의 역사를 다루는 전시가 열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것이 초석이 되어 다른 지역 작가들을 해석하는 전시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시대를 읽는 예술가들,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미술관 MoCA Busan

사실 부산은 제2의 도시라는 이름에는 걸맞지 않게 랜드마크가 될 만한 미술관이 부족했는데, 2015년 시립미술관에 이우환의 ‘공간이 별관으로 자리 잡고, 2018년 을숙도에 부산현대미술관을 문을 열면서 지형이 확 달라졌다. 부산비엔날레의 주 전시장이기도 한 부산현대미술관은 동시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읽어내는, 갖가지 문제를 둘러싼 담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다면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동시대성을 추구하는 미술관들은 미술관의 정체성, 미술관이 다루는 예술의 범주나 미술관이 생산하는 관람의 양태 등을 고민하기 마련인데, 부산현대미술관은 그런 역할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얼마 전 개막한 생태 환경전 <시간여행사 타임워커>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관람객이 미션을 해결해야 전시 여정을 마칠 수 있는 ‘방탈출’ 게임을 활용한 기획전을 선보여 새로운 방식의 참여형 전시를 시도했다. 놀이형 전시지만 과거 쓰레기매립장이던 을숙도의 특수한 배경 등을 반영해 환경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만큼 생태 환경을 주제로 한다. 더불어 진행 중인 <지속 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은 아예 제작, 포장, 운송, 설치, 철거 등 전시 과정을 아우르는 모든 활동에서 친환경적 실천을 시도한 기획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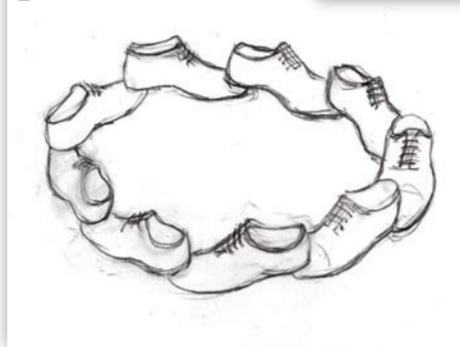
새로운 문화 지구의 꿈틀거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안규철 개인전 <사물의 뒷모습>

요즘 부산의 거리 풍경을 살펴봐도라던 “카페는 도시의 혈관을 타고 흐른다”고 한 번 읊송이라는 저자의 말이 떠오른다. 특히 부산에 뿌리를 둔 덴퍼센트나 키포즈 같은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나 서면, 해운대, 기장 일대의 개성 어린 카페들을 보면, “뜨는 동네에는 역시 그곳에만 있을 법한 카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로컬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다룬 책을 꾸준히 시리즈로 펴낸 모종린 교수가 최근의 저서에서 “머물고 싶은 동네에는 반드시 빵집이 있다”고도 했지만, 부산의 거리가 골목길을 산책하다 보면 매혹적인 베이커리가 많다. 최근에는 수영구 망미동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엿보인다. 옛 고려제강의 공장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멋지게 되살린 F1963이 이 동네의 명소가 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그새 국제 갤러리 부산 지점이 들어섰고, 최근에는 현대모터스튜디오의 브랜드 체험관이 입성하기도 했다. 그 여파로 망미동 일대에도 맛집이나 카페, 그리고 갤러리가 점차 눈에 띈다. 그래서 부산에 가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 갤러리 전시를 보러 망미동을 찾게 된다. 올봄에는 개념미술로 단단한 입지를 쌓아온 안규철의 개인전 <사물의 뒷모습>이 열리고 있기에(국제갤러리 부산 지점에서 오는 7월 4일까지), 발품을 파는 게 필수였다. 대학교수 생활을 병행하다 지난해 정년퇴직해 전업 작가가 된 그의 이번 전시는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그의 작품 여정을 수놓은 다채로운 구성으로 작은 회고전을 연상시켰다. 미술시 기자 출신이기도 한 그는 늘 “쓰는” 사람으로서 태도를 견지해왔는데, 전시명과 같은 <사물의 뒷모습>이라는 새로운 단행본도 얼마 전 출간됐다.

카페와 식당, 그리고 ‘히트’가 만들어내는 청신한 공기

F1963을 ‘찍고’ 인근을 탐색하다 보면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한결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게 된다. 딱히 계획적으로 생겨나지 않은 데서 느껴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가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지만 매력적이다. 그중에는 다시 찾게 될 듯한 느낌이 드는 오브제푸드(Objecthood)라는 갤러리도 있다. 지난해 여름 건축 설계 사무소 PDM 파트너스 건물에 들어선 이래 계절을 주제로 기획전을 잇따라 펼치고 있는 이 갤러리는 회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범주의 국내외의 신진 작가들을 소개하는데, 지역 작가의 참여에도 의미 있는 비중을 두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봄의 조각(Piece of Spring)>만 해도 6명 중 절반이 부산 출신 작가다(이은, 심종후, 정호석).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정원의 녹음과 어우러진 작품들이 ‘봄’의 생명력을 느끼게 해, 잠시 발걸음을 멈춰봐도 좋을 듯하다. 누가 알랴. 운이 좋아 대기표를 받고 줄을 서야 하는 유명한 망미동의 랜동 집도 더불어 ‘섭렵할 수 있을지 모른다. **글 고성현**



1 국제갤러리 부산에서 개인전을 진행 중인 안규철 작가의 모습. 개념미술 작업으로 의미 있는 작품을 남겼다. 그는 지난해 교차에서 은퇴한 뒤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배경 작품은 2021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인 회화 그들이다. 지난 곳에서 바다를 다시 제작한 작품이다. 당시 자취를 알 수 없는 5·18 실종자 야기를 캔버스에 담은 그는 2백 개의 캔버스를 시내 곳곳에 버려놓고 돌려달라는 신문 광고를 냈는데, 스물다섯섯 점만 돌아왔다고 한다. 사진 인천호. 2 'Solidarity Makes Freedom II' 드로잉(2021), Pencil on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3 '2/3 시회 II(2021)', Pencil on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4 안규철, '나는 침묵이 아니다'(1992/2021), 칠판 일면은 폴란드의 시인 아담 자기예프스키의 시 '독자'에서 온 편지 인용문이고, 뒷면에는 숲의 풍경을 칠판을 만든 폴란드로 표현했다. 안 작가는 광범위한 시대의 빛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둔 작업을 해왔다. Photo by SY Ko 5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자체 여블 문물 연 갤러리 '오브제푸드'의 건물 외관. 청신한 정원과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이 활용을 부른다. 6, 7 현재 오브제푸드에서 진행되는 '계절을 주제로 한 시브르 기획전 <봄의 조각(Piece of Spring)>이 열리고 있다. 이은(회화), 류재혁, 하이라도(도예), 사자해(공예), 정호석(영상), 심종후(가구) 등 6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절반은 부산 출신. 8번 작품 '이치는 전시 참여 작가이며 담백한 감성이 돋보이는 풍경화로 리브풀이 많은 부산 작가 이은의 작품 'Res'. 이미지 제공 오브제푸드



design to live by

F1963에 들어선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

21세기가 '체험 경제'의 시대라는 건 '핫한 지역이나 동네에 브랜드 체험관이 많이 들어서는 것만 봐도 체감할 수 있다. 팬데믹의 여파로 잠시 주춤하긴 해도 시각적, 참여적 체험을 선사하는 이른바 '공간형 콘텐츠'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브랜드 가치를 키워가는 현대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4월 초, 부산 망미동의 명소로 자리 잡은 F1963에 상품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디자인에 초점을 둔 브랜드 체험관을 열고 전시와 강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적 소통'을 꾀하고 나섰다.

예술인지, 디자인인지 모를 성격의 작품이 허다한 세상이지만, 20세기에 활동한 디자이너이자 교육자 노먼 포터는 '디자이너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을 책임지는 의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오늘날에도 새겨 들을 만한 메시지를 남겼다. '디자이너는 타인을 통해, 타인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문제를 다룬다는 사실을 주시시키면서 말이다. 전기가, 친환경 같은 이슈로 시끌벅적한 격변의 시대를 맞닥뜨린 자동차가 짙어진 과거는 이제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사명'이나 다름없다. 일상에서 필수 불가결한 자동차는 이미 20세기 초반에도 단순한 과학기술의 집약체가 아니라 문화이자 감성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고, 많은 첨단 기술이 그래왔듯 사회에 위 협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나은 삶을 이끄는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유례 없는 무게감을 떠안게 됐다.



1-3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자리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생 건축 사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기도 한 F1963에 지상 4층짜리 브랜드 체험관인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이 지난 4월 초 문을 열었다. 오토바이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이 체험 공간은 서울, 고령, 하남, 배동진, 모스카에 이어 운영하는 여섯 번째 현대모터스튜디오로 지상 4층 연면적 2,396.6㎡(약 7백58평) 규모를 갖췄다. 설계는 최욱 소장이 이끄는 원오원 아키텍트가 맡았는데, F1963이 청진 공간이었던 점을 착안해 외부와 철골을 살리는 방식을 택했다고. 현재 개관전으로 <리플렉션스 인 모션(Reflections in Motion)>이 열리고 있다. 입구로 향하는 1층에는 대형 LED 벽에서 다채로운 그룹 'Universal Everything'과 협업해 선보인 작품 '런 포에버'가 상영되고 있다. 4. 지난 5월 초 열린 '마스터클래스' 강연은 하는 현대자동차담당 이상엽 전무. 자신 디자인 세계에 대한 꿈과 열정을 차근차근 이룬 사람에 대해서부터 현대자동차에 합류하기까지 내러티브를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를 거친 이상엽은 이력,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에 대한 비전과 철학까지, 영감 넘치는 스토리텔링을 펼쳐내 열띤 호응을 얻었다. 마스터클래스는 디자인의 만남의 장인 디자이너스 테이블 프로그램의 하나로, 앞으로도 기획된 기타 미디어 이벤트 예정이다.

아니라 스마트한 소통의 매개체인 '모빌리티 디자인'은 마치 트랜스포머처럼 진화를 거듭하면서 버지않은 미래에는 일상의 안전과 풍요로움을 아우를 뿐 아니라 지구의 환경과 우주까지 보듬을 수 있는 '플랜웨어'라든가 될 테세이니 말이다. 부산 망미동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복합 문화 공간 F1963에 터를 잡은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은 입구부터 모빌리티 디자인 요소로 눈길을 잡아끈다. 와이어와 철골을 핵심 소재로 활용한 지상 4층의 건축물도 나름 매력적이지만 외관 벽을 미래 지향적 분위기의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감싸 시선을 이끈다. 내부 전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레트로 감성을 담백 담은 콘셉트가 '포니 헤리티지'라든가 미래 전기차의 디자인 방향성이 엿보이는 '프로페시(Prophecy)' 같은 디자인, 그리고 현(絃)의 진동과 울림을 기계장치와 빛으로 재현한 목조건축의 '미디어 스트링스' 같은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개관전 <Reflections in Motion>의 전시 풍경이다.

만나고, 소통하고, 영감을 나눈다... 디자이너스 테이블

공간이 내세우는 큰 주제가 'Design to live by'인 만큼 자동차만이 아니라 일상 속 디자인을 아우르며 전개될 다양한 전시 콘텐츠도 기대된다.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의 개관을 시작으로 디자인 큐레이터를 양성하는 '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 어워드 같은 프로그램도 사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통'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인 '디자이너스 테이블(Designers Table)'도 알차 보인다. 디자이너 지역의 고객이나 학생을 만나 비전을 공유하고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성격의 무료 강연으로, 기획전이 열리는 기간이면 2~3회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초 각 분야 전문가 한 명을 초대하는 '마스터클래스' 강연에서는 프랑스 국제 자동차페스티벌에서 '올해의 디자이너' 상을 받은 현대자동차담당 이상엽 전무가 나왔는데, 부산 지역의 고객만이 아니라 미래의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이 눈을 빛내며 던지는 질문이 강연장을 달구는 장면을 지켜보노라니, 창의적인 만남의 장이 앞으로 재능을 키우는 살아 있는 교습소라는 생각이 스쳤다. **글 고성현**

come together

같은 듯 다른 느낌.
매일 착용할 수 있는 데일리 커플링
다섯 쌍.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코코 크라쉬 링 다른 링들과 레이어링하기 좋은 코코 크라쉬의 미니 사이즈 링. 18K 화이트 골드에 칼링 모티프로 포인트를 준 링 1백87만원, 18K 옐로 골드에 18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 4백57만원 모두 **샤넬 화인 주얼리**. 문의 080-200-2700, chanel.com

포제션 링 2개의 밴드가 하나로 합쳐져 회전하는 모티브를 담아 경쾌한 사람의 에너지를 표현했다. 18K 화이트 골드에 37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 7백25만원, 7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 3백45만원 모두 **파아제**. 문의 02-3479-1802

비제르 링 더블 로고 장식과 나선 모티브가 특징인 아이콘 링. 로즈 골드에 나선형으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링 8백만원대, 다이아몬드 세팅 없이 그 자체로 볼드한 존재감을 살린 링 4백만원대 모두 **블라비**. 문의 02-2056-0170

포스텐 링 해양 케이블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4개를 세팅한 라지 사이즈 링 4백90만원, 다이아몬드 27개를 세팅한 미디엄 사이즈 링 4백30만원 모두 **프루드**. 문의 02-514-3721

두주르 시그니처 에프와일 링 매종의 인그레이빙 기법을 보여주는 모노그램을 반영한 링. 4mm 두께의 로즈 골드에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1개를 세팅한 버전 2백만원대, 3mm 두께의 링에 다이아몬드 7개를 세팅한 버전 2백만원대 모두 **반블리프 아젤**. 문의 1668-1906 에디터 **장미윤**



strong effect

블랙 세라믹으로 빚어낸 강렬한 정체성.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우부터) **위블로 박명 인티그랄** 케이스와 링크를 결합한 일체형 세라믹 브레이슬릿의 상징적인 미학 코드가 돋보이는 전 세계 5백 개 한정 제품. 메인 플레이트를 최소화한 지름 42mm 케이스 속 복잡 정교한 무브먼트를 진전에 드러낸 스칼라톤 모델로 총 72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수심 100m 방수 기능을 갖춘 유니크 매뉴팩처 무브먼트 HUB1280으로 구동한다. 3천2백만원대. 문의 02-777-005

브라이틀링 슈퍼오션 해라이지 B20 오토매틱 42 COSC 인증받은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B20으로 움직이며, 수심 200m로 끌어올린 방수 기능으로 다이버 워치의 면모를 강조하는 모델. 기중자리의 1백20개 톱니를 통해 정확하고 부드러운 회전이 일품인 디방향 회전 바깥에는 초강도 세라믹 링을 장착했으며, 12시 방향에 아람 마커를 표시했다. 6백10만원대. 문의 02-3448-1230

블리리 옥토 파-미노 스칼라톤 케이스와 다이얼, 브레이슬릿과 디플로이먼트 버클 등 모든 부품을 샌드 블라스트 처리한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제작했다. 두께 약 2.35mm의 초박형 모델로 팔각 케이스 안에서 복잡 정교한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3천1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샤넬 워치 J12 블랙 지름 38mm의 매끈한 원형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디자인이 극도로 현대적인 이미지를 그린다. 칼라버는 COSC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칼리버 12.1을 사용하며, 스파이더 글라스를 적용한 투명할 케이스 백을 통해 무브먼트를 한껏 드러낸다. 가격 미정. 문의 080-200-2700, chanel.com

제이스 데미 클래식 블랙 세라믹 별 모양으로 섬세하게 투조 세공한 5개의 난개 사이사이로 드러나는 매뉴팩처 오토매틱 엘리트 670 무브먼트의 움직임에 시선을 빼앗는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슈퍼루미노바를 인티그랄과 시그니처에 코팅했다. 1천95만원. 문의 02-3479-6191

파라데이 루토네로 루미노르 GMT 상징적인 크라운 가드를 장착한 역동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 파워 리저브를 72시간으로 늘린 칼리버 P.9010/GMT를 장착했고, 블랙 다이얼 위 3시 방향에 날짜창을, 9시 방향에는 세컨드 타임존을 표시하는 인디케이터를 올렸다. 1천만원대. 문의 02-6906-3394 에디터 **이주미**

이니스프리트 백지현

Elegant Innovations

올해 샤넬 워치는 디지털 플랫폼 형식으로 진행된 워치스 & 원더스 2021에 안착했다. “공연 프로그램처럼 이번 컬렉션을 구성해 샤넬의 클래식을 차려올 컬렉션 무대에 올렸습니다.” 워치메이킹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디렉터 아르노 샤스탱(Arnaud Chastaing)의 설명에 부합하는 다채로운 신제품은 시계 애호가를 비롯해 충성스러운 고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1980년대 일렉트로 뮤직에서 영감을 얻어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컬러를 입힌 캡슐 컬렉션, 기능과 디자인의 변주를 통해 보다 신선한 모습으로 재탄생한 아이코닉 컬렉션까지. 그중 <스타일 조션일보>에서 엄선한 2021년 주요 모델을 소개한다.



J12
J12 다이아몬드 베젤 아이코닉한 J12의 모노코롬 스타일에 화사한 빛을 더했다. 견고한 블랙·화이트 세라믹 케이스의 베젤에 1.51캐럿 상당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50개를 세팅했고, 블랙·화이트 래커 다이얼에도 숫자 인디케이터 대신 12개의 다이아몬드를 더했다. 4시와 5시 사이에 날짜장이 위치하며 블랙 세라믹 카보송 또는 화이트 세라믹 카보송을 세팅한 논 스크루 다운 크라운을 장착했다. 케이스 지름은 38mm로 케이스 백을 통해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칼리버 12.1의 정교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J12 화이트 칼리버 3.1**

완벽하게 맞물려 작동하는 기계식 시계의 아름다움과 주얼 워치의 눈부신 광채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모델. 투명한 사파이어 글라스로 처리한 다이얼 전면을 통해 인하우스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3.1의 자태를 감상할 수 있다. 화이트 세라믹과 화이트 골드 소재 케이스의 베젤에 46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5.46캐럿)를, 시간을 알리는 인덱스에 12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0.38캐럿)를 세팅했다. 0.1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 크라운에서도 장식적 면모가 드러난다. 케이스 지름 38mm. **J12 일렉트로 스타** 일렉트로 뮤직의 감성을 그래픽적 코드로 풀어낸 J12 일렉트로 에디션의 네 가지 모델 중 가장 압도적인 화려함을 자랑하는 하이 주얼리 워치로 이름처럼 환상적인 별 무리를 연상시킨다. 다이얼을 포함한 지름 33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전체에 약 26.16캐럿에 달하



J12 일렉트로 박스



J12 다이아몬드 베젤



J12 다이아몬드 베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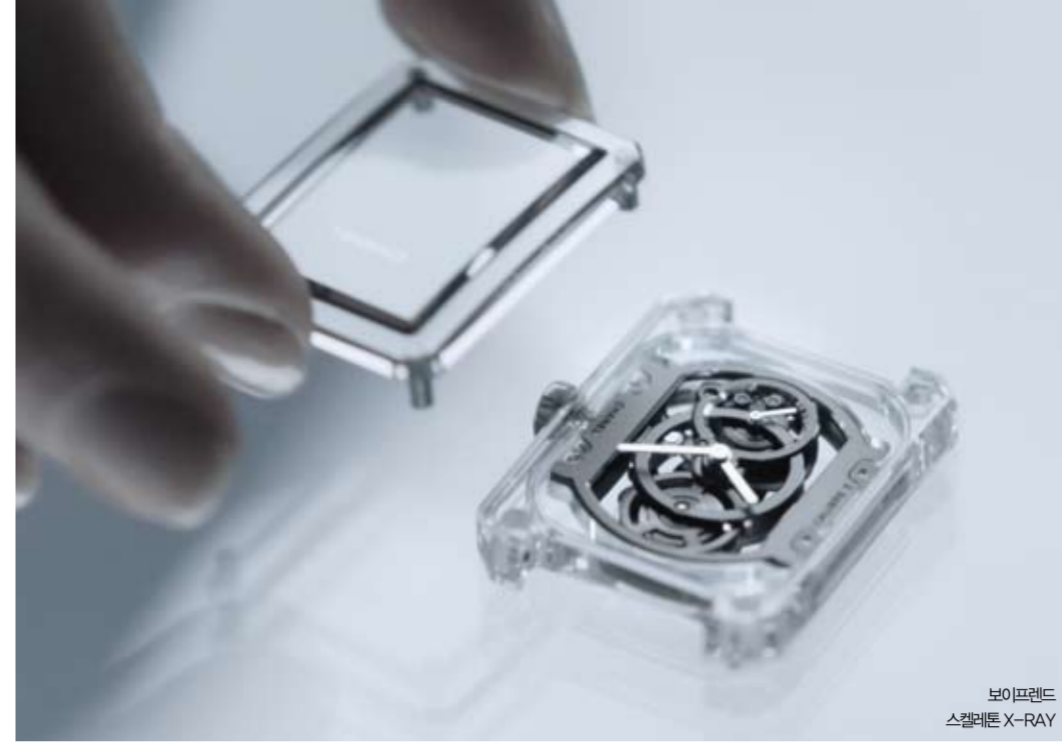
J12 일렉트로 스타



J12 일렉트로 드림

J12 일렉트로 스타

© sponsored by CHANEL



보이프렌드 스킨레톤 X-RAY

BOY.FRIEND

보이프렌드 스킨레톤 X-Ray 보이프렌드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엑스레이 콘셉트 워치.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를 장착해 사방에서 인하우스 스킨레톤 메카니컬 칼리버 3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지름 37x28.6mm의 케이스 우측에는 5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화이트 골드 크라운을 더했고, 모던한 사이 니 블랙 컬러의 엘리게이터 패턴 카프 스킨 스트랩을 매치했다. 30m 생활 방수 및 55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1백 개 리미티드 에디션. **보이프렌드 스킨레톤 베이시** 하우스 고유의 18K 베이시 골드 케이스와 베이시 골드 도금 처리

한 칼리버를 장착한 스킨레톤 워치. 베젤에 38개(1.58캐럿)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아이코닉한 컬링 모터브의 골드 브라운 카프 스킨 스트랩을 매치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케이스 지름은 37x28.6mm로 시계 전면과 후면에서 인하우스 스킨레톤 매뉴팩처 칼리버 3의 우아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55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다.



보이프렌드 스킨레톤 X-RAY



보이프렌드 스킨레톤 베이시



미드모젤 프리에 부통 까멜리아

MADEMOISELLE PRIVÉ BOUTON

미드모젤 프리에 부통 까멜리아 '부통(bouton)'은 프랑스어로 단추를 의미한다. 별도의 단추 공방을 갖춘 샤넬 패션 하우스의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이 모터브가 시계로 재탄생했다. 컬링 패턴의 모르도레(Mordoré) 가죽으로 감싼 컷 프 브레이슬릿 중앙에 상징적인 까멜리아 부통 장식을 얹었다. 9개의 머더오브펠 조각과 15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개의 센터 다이아몬드로 구현한 아름다운 까멜리아 버튼을 위로 밀어 올리면 숨어 있던 다이아몬드 세팅 다이얼이 등장한다. 다이얼 위에는 1백4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부통 장식을 감싼 옐로 골드 코딩(코드) 장식에는 5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장식해 광채를 발산한다. 퀴츠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55피스 한정 출시한다. **미드모젤 프리에 부통 리사주** 사자자리인 가브리엘 샤넬의 토텐 리옹(사자) 부통이 강렬하다. 세밀하게 묘사한 옐로 골드 리옹 모터브 주변을 2캐럿에 달하는 트라페조이드(trapezoid, 사다리꼴)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하고, 두 겹의 옐로 골드 코드 디테일을 더했다.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코드에는 5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까멜리아 모델과 동일하게 부통 아래에는 1백4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장식

다이얼이 자리하며 퀴츠 무브먼트로 시간을 알린다. 압도적인 디자인을 완성하는 키프 부분은 샤넬 자수 공방 르사주(Lesage)의 자수를 더한 블랙 카프 레터 소재를 사용했다. 55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문의 080-200-2700, chanel.com 에디터 **이혜미**(재현 에디터)



미드모젤 프리에 부통 리사주

미드모젤 프리에 부통 리사주

Sea Alone

6월의 푸른바다와 함께한 럭셔리 프리 서머 룩.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오강자 소재 코트 6백만원대,
오강자 소재 셔츠 1백만원대, 오강자
소재 팬츠 가격 미정, 라이트 블루 컬러
보디수트 70만원대, 로고 슬라이드
80만원대, 다이스 네크리스 1백만원대,
다이스 이어링 60만원대 모두 판매.

플러워 프린트 오버사이즈
셔츠 3백35만원 발매타노,
마코 크로스 보디수트
35만원 조이 그라이스.





버건디 컬러 코튼 재킷 3백만원,
레드 & 화이트 컬러 스트라이프
코튼 쇼츠 1백75만원, 알티플러
브라셋 가격 미정, 하이웨이스트
브리프 가격 미정 모두 다음.



블랙 & 화이트 컬러 패턴
블라우스, 팬츠 스카프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그린 컬러 패턴 후드형,
스카트, 라이트 블루 컬러 숄더백
핑크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자카드 코튼 소재 재킷,
코튼 자지 소재 몸, 코튼 자지
소재 스카트, 핑크 컬러 주얼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샤넬.

비즈 장식 코튼 크로세 소재
드레스 2천4백50만원,
레더 웨지 풀 2백6만원,
멀티컬러 네크리스 가격 미정
모두 보태가 베네타.



블루 컬러 패턴 키디건 2백60만원,
니트 롱 1백25만원, 스커트 가격
미정, 골드 컬러 레더 스트랩 썬캡스
1백15만원, 플라워 모티브 네크리스
2백35만원, 플라워 & 크로스
모티브 이어링 62만원 모두 구찌.



헤어 & 메이크업 이영
프릴엘리스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서울 080-200-2709
예르케스 02-544-7722
다들 02-3480-0104
보태가 베네타 02-3438-7601
구찌 02-3452-1921
퀸디 02-514-0652
프리카다 02-3218-5331
발렌티노 02-2015-4653
조이 그라이슨 080-202-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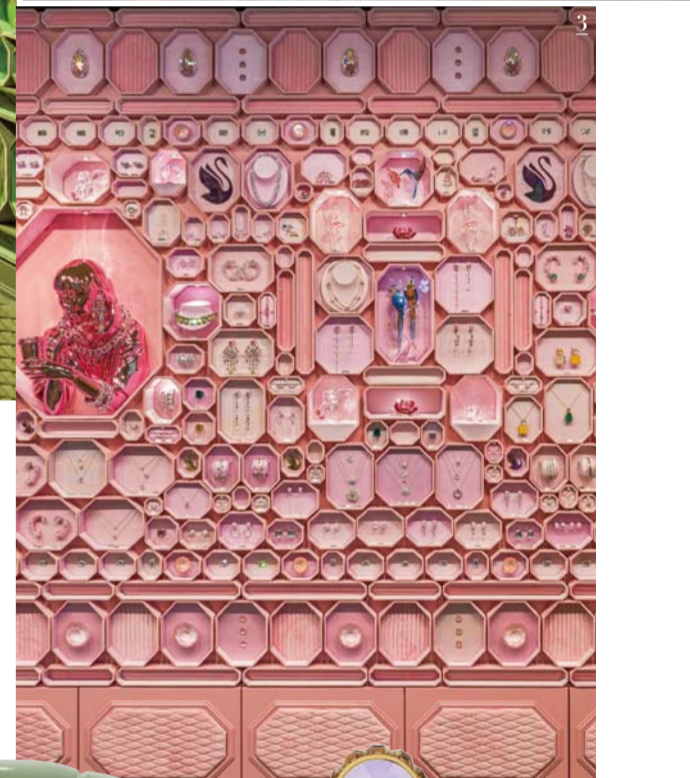
Let's play it

운동 욕구를 되살려주는 '쿨한 패션 기어'.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유튜버 시계 방형으로) 코튼에 숏이자죽을 트라밍한 미디어 호스퍼리 프린트 캔버스 큐브 백 2백45만원 **버버리**, 문의 080-700-6800, 옐로 코튼에 블루 스타칭한 감각적인 색 조합이 돋보이는 볼 캡 6만5천원 **라코스테**, 문의 1588-9619, 558g의 가벼운 무게와 18시간의 재생 시간을 갖춘 포터블 블루투스 스피커 베오시운드 A1 2세대 36만8천원 **방앤웬디**, 문의 02-518-1380, 5K 동영상과 20MP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타임랩스와 4K 슬로모션 옵션을 제공하는 하이로 9 블랙 카메라 158g 59만9천원, 블루 실리콘 케이스 3만5천원 **고프로**, 문의 02-480-5500, 부드러운 질감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미감 모두 충족시키는 데님 & 스웨이드 카프 스킨 스니커즈 가죽 미장 **사펠**, 080-200-2700, chanel.com, 상징적인 모그렐 패턴을 적용한 크리스토퍼 점프 로드 가죽 미장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스텔라칭과 근막 이완에 필수적인 릴리즈 앤 리라버 볼 세트 4만원 **롤루레온**, 문의 0507-1424-0199, 43mm 재생 알루미늄 케이스와 스테인리스 스틸 베젤을 적용해 56g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스마트 워치 시리즈 1백12만원 **몽블랑**, 문의 1670-4810, 화이트 카프 스킨 트라이앵글 백 1백49만원 **셀리네**, 문의 02-549-6631, 미러 렌즈 몽블랑 루네트 선글라스 44만원 **몽블랑**, 문의 080-311-0000, 감각적인 핑크 컬러를 덧입힌 농구공 가죽 미장 **보스 맨**, 문의 02-515-4088, 에디터 **이주이**

이 스타일은 비공개



Welcome to wonderland

올해로 창립 1백26주년을 맞은 스와로브스키가 새로운 캠페인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유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인스턴트 원더(Instant Wonder)'를 공개했다. 아름답고 경이로운 크리스털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지난 2월 이탈리아 밀라노를 시작으로 3월에는 프랑스 파리, 4월에는 뉴욕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찬란하게 빛나는 크리스털처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한 공간이 마침내 5월28일 한국에도 상륙했다. 신세계백화점 하남 스타필드 2층에 위치한 스와로브스키 매장이 '인스턴트 원더(Instant Wonder)' 콘셉트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다. 스와로브스키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지오바나 엔겔베르트(Giovanna Engelbert)는 "인스턴트 원더 매장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착륙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한 마법 같은 공간이다. 주얼리를 구매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순간과 즐거움을 의미하며,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을 바란다"고 전했다.

감각을 깨우는 다채로운 빛
인스턴트 원더는 스와로브스키가 전개하는 신규 브랜드 캠페인과 새로운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반영해 강렬한 컬러 플레이와 대담한 비주얼로 마법 같은 크리스털 주얼리 세계를 구현하고자 했다. 빛이 크리스털을 통과할 때 펼쳐지

는 찬란한 빛의 스펙트럼에서 영감을 얻어 화이트, 핑크, 그린, 베이비 블루, 옐로까지 총 다섯 가지 시그니처 컬러 위주로 디자인했다. 벽면 전체를 화려하게 장식한 팔각 모티브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팔각 형태의 보석을 재해석한 것으로, 스와로브스키만의 대담하면서도 화려한 분위기를 전한다. 또 스와로브스키의 유명한 실험 정신을 담아 3D 스캐닝 기술로 구현한 메탈릭 질감의 흉상을 배치했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흉상에 다채로운 캔디 컬러를 입혀 활력 넘치는 에너지를 전한다. 마치 원더랜드로 여행을 떠난 듯 환상적인 착각을 일으키는 공간에서는 브랜드가 새롭게 전개하는 주얼리 컬렉션 '컬렉션 원(Collection 1)'은 물론 홈 액세서리 오브제와 필기구, 워치 등을 모두 만날 수 있다. 크리스털이 전하는 매혹적인 주얼리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마법과도 같은 스와로브스키의 초대에 응해볼 것. 문의 1522-9065 에디터 **이주이**



1 브랜드의 근본이자 자연을 나타내는 그린 컬러로 장식한 인스턴트 원더의 내부. 2 지난 3월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문을 연 인스턴트 원더 스토어. 3 루이를 상징하는 새로운 패시지의 팔각 모티브를 벽 전체에 적용한 월. 4 싱글 크리스털을 품은 롤리스 라테일 링 29만원대. 5 라일라 루비 레드 크리스털을 비대칭으로 세팅한 앙포르팅 드롭 이어링, 심플인 컬러의 작은 바게트 크리스털이 테두리를 감싸며 우아한 디자인을 완성한 오프바타 이어링 24만원대. 6 오버사이즈 클러머 쿠션 컷 크리스털로 장식한 하모니-이 초크 네크리스 1백20만원대.

sponsored by SWAROVSKI

rosy days

한없이 들뜨고 사랑에 빠지고 싶은 계절, 장밋빛 여름을 빛내줄 뉴 메이크업.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화이트 블러시 제모, 브라기아 (미성·1인), 문의 080-200-2700
 클렌징 폼, 아이싱 크림, 미네랄 파우더, 문의 02-3432-1884
 유티 리프트, 비어 홀리 어빙 15인원, 보타기 팩, 문의 02-3442-9470
 유티 리프트, 노스 9인원, 에디션 보타, 문의 02-3442-9470

(위부터) 시스미 뷰티 비움 **에빙씨엘 글로우 스틱 #프린트**에 얼굴에 윤기와 생기를 부여하는 촉촉한 크림 타입의 하이다이밍 밤, 신뜻하고 투명하게 빛나는 핑크 컬러가 자연스럽고 화사한 핑크를 부여하고, 촉촉한 광채가 얼굴 윤곽을 아름답게 연출한다. 얼굴과 입술, 눈가에 사용할 수 있다. 8g 5천9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나스 유포리아 페이스 팔레트 순수함과 관능미를 오가는 여덟 가지 아이섀도 와 얼굴에 자연스러운 음영을 연출할 수 있는 은은한 시머 재질의 하이다이밍 파우더 구성이 돋보이는 아이섀도, 얼굴 어느 부위에 타닥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벼운 텍스처가 특징이다. 아이섀도 1.2g X 8 & 하이다이 4g X 3, 7만 9천원대. 문의 02-6905-3747
에르메스 로즈 에르메스 로지 립 인펜서 #30 로즈 데테 화이트 알바니 추출물을 담은 섹션잇 크림 타입으로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핑크를 부여한다. 섹션드와 이브나, 인젤리카가 아우라진 감미로운 향기는 립, 라즈베리 시드 오일과 함께 오일 성분 함유해 보습 효과도 상당하다. 4g 9천원. 문의 02-310-5174
구찌 크레이용 데피니션 슈르실 파우더 아이브로우 펜슬 #03 사방 펜슬과 큰 브러시를 함께 구성한 듀얼 형태. 파우더리한 텍스처로 농도 조절이 용이하고, 매트 파우더가 부드럽게 밀러 묻힘 없이 보송하게 마무리된다. 1.19g 4만1천원. 문의 02-3452-1021
로라 메르시에 블러쉬 컬러 인듀전 #유포렐 코코넛 오일 유래 성분을 담은 벨벳 텍스처가 피부를 갠새듯 가볍게 밀착해 매끄러운 피부를 연출한다. 팔이 없어 컬러가 깨끗하고 맑게 연출되며 10시간의 지속력을 자랑한다. 6g 4만원대. 문의 080-564-7700
칼랑 메테오리트 라이트 리빙링 필 파우더 #03 미디엄 중간 피부 톤을 화사하게 보정해주는 연보라, 핑크, 옐로, 베이지, 샤페인, 피치 등 여섯 컬러로 구성했다. 다이아몬드 입자를 함유한 상쾌한 향이 얼굴 윤곽을 아름답게 연출해주어, 은은한 제비꽃 향이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한다. 25g 8만8천원. 문의 080-343-9500 에디터 **이주이**

beautiful tech

매끈한 피부를 위한 스마트한 제모 디바이스를 소개한다. 갈바닉과 IPL(Intensive Pulsed Laser)을 결합한 글로벌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실큰의 '인피니타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피부과에서 받던 제모 시술을 이제 집에서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대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는 비대면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아름다운 기술을 추구해온 실큰은 기존 제모 디바이스에 갈바닉 전류를 추가한 한층 똑똑해진 IPL 제모 디바이스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갈바닉 전류와 광 에너지를 결합해 원하지 않는 털을 제거해준다. 원리는 이러하다. 갈바닉 에너지가 모공을 일시적으로 확장해 모발 멜라닌이 빛을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광 에너지는 모낭의 어두운 색소에 선택적으로 흡수된다. 흡수된 에너지가 열로 변하면서 모낭을 무력화해 더 이상 체모가 자라지 않게 한다. 각각의 피부와 체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2주에 한 번 2개월 동안 사용하면 2년간 제모 효과가 지속된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출력창을 피부와 밀착한 상태에서 갈바닉 베이스 전극과 조사 버튼을 동시에 잡고 누르며 천천히 움직인다. 조사 버튼을 누른 채 움직이면 지속적으로 레이저가 조사되는 '갈라이딩' 기능이 있어 빠르게 제모할 수 있다. 조사창의 크기가 커 넓은 부위도 간편하게 제모할 수 있다. 인피니타는 225g의 가벼운 무게로 한 손에 들어오는 콤팩트한 디자인이 적절한 그림감을 전한다. 블루라이트 소독 효과와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는 클렌징 박스를 별도 제공해 실용적이다. 또 어두운 피부 사용 범위가 넓어 얼룩덜룩한 남자 수염, 거뭇한 겨드랑이, 비키니 라인부터 흉터 부위까지 눈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에 사용 가능하며 펄스수 제한이 없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 FDA 승인, 유럽 CE, 한국 식약처 등의 허가를 받은 안전한 IPL 제모 의료 기기 실큰으로 매끄럽고 쾌적하게 여름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글 남지현 객원 에디터**



● Sponsored by silk'n

지금, 서울의 내추럴 와인 2021



뜨겁고 화려하게 한국 시장에 상륙한 내추럴 와인. 불과 몇 년 사이 소비자들은 그것을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닌 데일리한 와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내추럴 와인을 소란스럽게 마시고 과시하던 시기를 지나 불필요한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음료인 것에 감사하며 마시는 시대가 온 것. 전문가들은 내추럴 와인 시장이 더욱더 견고하게 한국의 주류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

내추럴 와인, 장르가 아닌 일상으로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데, 한결같이 마이너 시장을 유지할 것 같았던 와인 시장도 바뀌었다. 코로나가 절정을 이루던 2020년, 관세청에 따르면 와인 수입액은 전년 대비 27.3% 이상 증가했다. 놀라운 수치다. 연간 와인 수입액은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입량도 24.4% 이상 증가해 5만4천 톤을 넘어섰다. 양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와인 시장은 지금 흥분돼 있다. 모두 10시에 귀가해 집에서 와인을 마시는 것일까? 영화 보면서 천천히 홀짝이기에는 배부른 맥주보다 와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일까? 또는 3년 전부터 트렌드 키워드로 급부상한 내추럴 와인이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은 것일까? 유기농 채소를 고집하는 소비층이 좀 더 비싸더라도 화학물질을 배제한 내추럴 와인을 데일리 와인으로 채택한 까닭일까? 아마 전부 정답일 테지만, 나는 3년 전 서울에 혜성처럼 등장한 내추럴 와인이 와인 시장의 성장에 필연적으로 관여했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특권층이 향유하던 술이 아니라, 지식 없이도 자유로운 표현으로 마실 수 있는 술로서의 길을 내추럴 와인이 열어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년 전만 해도 내추럴 와인은 독립적인 장르물이었다. 명칭 자체가 자극적이었다. 내추럴 와인이라니, 그럼 그동안 내가 마신 와인은 언내추럴 와인이었다고 말인가?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내추럴 와인을 잘못 접한 이들은 “저는 내추럴 와인의 쿼콤하고 명칭한 맛을 싫어해요”라고 말했고, 대부분의 손님들은 “내추럴 와인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예요?”라며 못마땅해했다. 하지만 화학물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이 신에 스타는 3년 만에 메이저로 급부상했다. 동네에 하나씩 있는 유기농 그로서리 슈퍼, 내추럴 와인을 다루는 와인 숍과 바가 엄청난 속도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내추럴 와인을 다루는 와인 숍이 압구정, 신사, 청담 일대에 생겨나는 속도가 10년 전 치킨집이 생겨난 속도와 비슷하다는 기사가 속속 나왔다. 내추럴 와인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보수적인 와인 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한 것일까? 소수가 향유하던 와인 문화는 어떻게 MZ세대의 호기심을 끄는 트렌드로 성장한 것일까? 우선 내추럴 와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상형 와인 아닌 자연 와인’

먼저 내추럴 와인과 그렇지 않은 와인(컨벤셔널 와인)의 정확한 뜻을 이해해야 한다. 기원전, 포도주를 맛있게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와인을 내추럴 와인으로 분류하는 게 좋겠다. 포도 자체의 건강함과 날씨의 마법이 만나 당분이 알코올로 발효된 술. 그 어떤 인위적인 노동력도 부가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술.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산화황을 넣지 않아 특유의 시큼달달함이 알송달송하게, 또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내추럴 와인이다. 꽤 오랜 기간, 이런 내추럴 와인은 시장에서 제외되었다. 사람들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보석을 걸치고, 메이크업을 한 자극적인 와인에 강렬한 매력을 느꼈다. 드레스나 보석, 메이크업에 해당하는 행위는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포도에 농축미를 더 하려고 멸균한 가지를 치는 것(맛진 말로는 그린 허베스트),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약을 뿌리는 것(아토피에 민감한 사람은 농약을 친 포도로 만든 포도주에 간지러움을 느끼며 격렬하게 반응한다), 와인이 좀 더 오랫동안 숙성되고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산화황을 첨가하는 것. 하늘의 뜻보다는 사람의 의지가 훨씬 많이 개입되는 이 와인들은 내추럴 와인과 반대되는 개념인 컨벤셔널 와인으로 불리는데, 어



1 이탈리아 피에몬테주의 포도밭 풍경. 2 인공적인 양조 방식을 최대한 배제하는 프랑스 알자스 보트기일. 3,7 내추럴 람부르스코를 만들어 와인 맛을 만든다는 오명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 에델라이트마주. 불로의 와인 바기리. 4 프랑스 남부, 페르피냥에서 열린 내추럴 와인 페스티벌. 5 장 프랑스어 기브리와 함께 알파다 자신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 동굴 같은 카브에서 정진 중인 다비드의 셀러. 6 프랑스 부르고뉴의 내추럴 와인 메이커 기에르미셀 와인과 증류주. 8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내추럴 파노누이를 만드는 샹페라스의 큐브.

는 순간 이런 ‘상형 와인’ 말고 자연 와인을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사람이 마시는 와인에 들어가는 포도는 최소한 유기농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채소나 과일, 쌀을 고를 때 유기농을 선택하는 것처럼요.” 내추럴 와인을 조금씩 수입하던 시장은 국내에도 십수 년 전부터 존재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 소비자가 직접 고르고 선택하는 시장으로 성장한 건 한국 최초의 내추럴 와인 바 프렌치터틀(제주)과 한남동 비라이즈 바가 생겨난 2017년 이후부터다. 강단 있는 애호가 대표가 문을 연 아담한 내추럴 와인 바는 지금도 그렇지만 시작했을 때는 매우 획기적인 공간이었다. 비라이즈 바 오너는 초기에 내추럴 와인 특유의 맛과 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자신이 소개한 손님에게만 자리를 내주었다. 내추럴 와인에 대해 알고 싶어 물어 달아오른 사람들에게 비라이즈의 예약 확정 디엠은 로또 같은 거였다. 그리고 그 이후 몇 년 동안 수많은 내추럴 와인 바와 숍이 생겨났고, 을지로, 삼각지는 내추럴 와인 명소 집결지가 되었다. 화려하게 부상했다 사라질 트렌드라고 예상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몇 년 후인 지금, 내추럴 와인 시장은 더 뜨겁고 잔잔하다. 한번 마시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산화황이라는 화학물질을 함유하지 않으므로 느껴지는 부드럽고 순수한 맛을 일상적으로 즐긴다. 이산화황으로 인한 특유의 날카로운 신맛, 맛을 일정하게 해주는 방부제의 누앙스가 빠진 내추럴 와인은 조금씩 매일 마시기에 알맞다. 몇 년 전만 해도 구입하거나 마실 곳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수동, 을지로, 삼각지, 신당동을 향해 뻗어 나가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과 쇼핑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동네에 맛있는 빵집과 좋은 셀렉션을 갖춘 책방, 일상 와인을 파는 와인 가게가 있으면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진다고 믿는 나에게 무척 반가운 변화다.

화려하진 않지만 매력적인 와인

내추럴 와인은 마트에 산티미처럼 쌓인 결정 없는 채소 말고, 시장에서 이름 없는 농부가 좌판에 내놓고 파는 벌레 먹고 초리한 채소에 가깝다. 물론 어떤 날에는 헤화동 마르세에서 예쁜 옷을 입고 브랜딩된 농부의 이름으로 팔리는 채소가 될 수도 있다. 채소라는 카테고리에는 다양한 의도의 농작물이 존재하는데, 내추럴 와인의 포지션 또한 와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채소와 비슷하게 분류된다. 지금 비록 화려하게 주목받고 있지만 절대적인 트렌드도, 절대 강자도, 대단히 위대한 신의 선물도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내추럴 와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맛이다. 10년 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국내 최초로 내추럴 와인을 수입한 와인엔 광동영 대표에게 내추럴 와인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꼭같은 와인인데, 여러 가지를 걸어서 맛이 깨끗한 거야”라는 명쾌한 대답을 보 내주었다. 만약 알 오졸같이(?) 시큼달달하고 쿼콤한 효모 향이 지나쳐 도저히 매력이 없는 내추럴 와인을 마셨다면 내추럴 와인이 맛있는 게 아니라 이 와인이 맛이 없는 거군” 하고 생각해주시길. 우리는 이 평범한 진리를 담은 술을 잘못 마시고 미워하는 수많은 손님에게, 보편적으로 맛있는 내추럴 와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가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황홀한 완성도를 자랑하는 세상에 없는 맛을 한 병 마시고 나면 내추럴 와인과 첫눈에 반하는 건 무척 쉬운 일이다. 다음 날 숙취도 덜하다. 정말이다.

글 | 명지 내추럴 와인 바 위키드와이프 윤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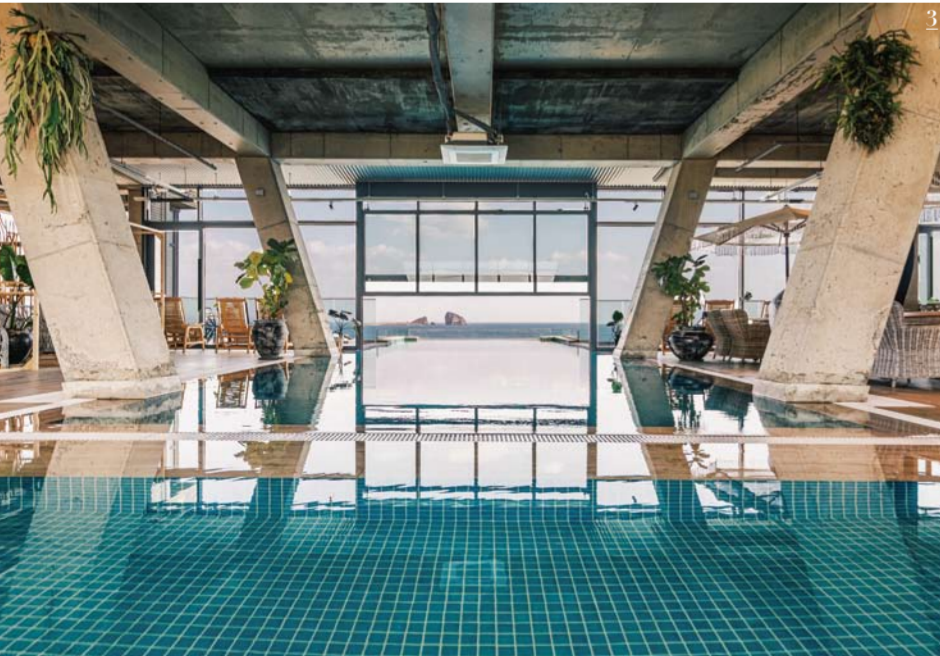




escape to heaven



1 트로피컬 하이드어웨이 호텔 객실에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제주 바다와 산방산 풍경. 테라스에는 야외 욕조가 있어 특별한 힐링 타임을 즐길 수 있다. 2 자연미가 그대로 살아 있는 원목을 소재로 한 편안하고 이국적인 객실. 소풍 하러 여기에서 트로피컬 감성이 물씬 느껴진다. 3 호텔 2층은 전체가 강재를 구분할 수 없는 인피니티 풀로 이루어졌다. 4 마치 동남아나 지중해의 리조트에 온 듯한 1층의 베이커리와 펠, 컬러풀한 인테리어가 경쾌하다. 5 야경이 돋보이는 제주 트로피컬 하이드어웨이 호텔.



홀췌 떠나고픈 경이로운 섬, 제주도. 그리고 그곳에 새로 자리 잡은 스타일리시한 호텔 '트로피컬 하이드어웨이'.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매력적인 핫 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제주와 자연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담은 곳

제주섬 최남단에 위치한 송악산에서 5분 거리에 매력적인 호텔 '트로피컬 하이드어웨이'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트로피컬 하이드어웨이는 서울 압구정동에서 사랑받았던 '젠 하이드어웨이'에서 새롭게 오픈한 호텔. 바다와 숲으로 둘러싸여 넓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품고 있어 힐링을 만끽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다. 제주 고유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그대로 살리고, 휴식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호텔 곳곳에서 엿보인다. 내추럴함이 살아 있는 원목 가구와 라탄 소재 소품, 이국적인 핸드메이드 장식품은 마치 외국의 휴양지 혹은 작은 숲속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로맨틱한 테라스가 딸린 객실에서는 바다와 하늘, 그리고 산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호텔에 머무르는 내내 휴양지의 감성이 느껴진다.

아름다운 제주가 대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남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바탕으로 지은 이곳은 1층은 자연 친화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레스토랑과 베이커리, 펠로 즐길 수 있다. 2층은 전체가 사계절 온수 풀장인데, 절반은 실내, 절반은 외부로 연결되어 송악산과 산방산, 정면으로는 형제섬을 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 풀로 들어서는 순간 감탄을 자아낼 정도. 3, 4층에는 20개의 룸이 있는데, 모든 룸이 오션뷰와 친환경 콘셉트로 구성되어 있다. 객실 내부의 가구는 전부 리사이클 티크 우드로 제작했고, 모든 룸의 테라스에는 야외 욕조가 있어 특별한 힐링을 즐길 수 있다. 트로피컬 하이드어웨이 호텔의 또 다른 특징은 노키즈 호텔이라는 것. 커플이나 친구 등 조용하게 여행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최대한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로맨틱한 공간으로 구성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평화로를 따라 50분이 소요되는, 송악산, 산방산, 한라산이 보이고 형제섬이 보이는 로케이션도 최고다. 근처 형제해안로는 올레길 10코스로, 최근 제주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드라이브 코스는 물론 걷기에도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힌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제주의 새로운 공간 트로피컬 하이드어웨이 호텔에서 이국적인 인테리어와 함께 아름다운 제주의 대자연을 즐기고, 느끼며 같이 호흡하는 시간. 여름이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다. www.tropicalhideaway.co.kr 문의 064-792-1462



Keep Wellness

운동 의지가 불타오르는 6월,
효과를 배가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도와줄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단기간 바짝 하는 운동보다 장기적인 운동이 건강한 체질을 만들어주듯,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단백질 섭취다. 운동후디스에서 선보이는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는 50년 넘게 살아온 유산이 설계 노하우를 모두 집약한 단백질 건강 기능 식품으로, 근 손실 예방은 물론 체내 호르몬, 항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섭취를 돕는다. 프리미엄 상용유 단백질을 비롯해 우유 단백질에서 유래한 분리 유단백, 유산 등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한 농축 우유청 단백질, 우유 단백을 눌러 담은 농축 유단백뿐 아니라 동식물성 단백질 밸런스를 고려해 식물성 단백질 분리대두 단백질까지 5대 단백질을 골고루 담았다. 20g의 단백질을 함유한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 1잔이면 식약처가 제시하는 단백질 1일 섭취량의 약 1.6배를 섭취할 수 있다. 여타 단백질 파우더와 달리 하이문은 균형적인 영양 설계로 단백질 섭취는 물론 좀 더 효율적으로 영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먼저, 근육과 함께 뼈 건강을 위한 영양도 강화했다. 칼슘과 신경,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한 마그네슘을 이 상적인 비율 2:1로 배합한 것은 물론,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 D, 단백질 및 아미노산 아용에 필요한 비타민 B, 1일 권장 섭취량을 고려해 균형 있게 담았고, 세포분열 활성화와 장상적인 면역 기능을 위한 아연도 추가했다. 또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판토텐산도 함유하며,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아미노산인 류신과 글리세롤 부원료로 포함되었다. 여기에 유산균의 먹이로 장내 유익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기능을 갖춘 프리바이오틱스인 프락토올리고당을 더해 장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다는 것도 하이문의 장점이다. 유당 역시 저사 우유 대비 1/10 수준으로 불포화 지방이 마실 수 있다. 찬물에도 잘 녹아 물 온도 상관없이 편하게 음용 가능하며, 액상 형태의 파우치, 멸균팩으로도 출시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정산없이 바로 일상 속 하루 1컵의 하이문으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 해보자. 문의 02-2049-2238 에디터 이지이

BOTTEGA

VENETA